

# 고등학생의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정적 정서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분석

##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Exploring Differences by Negative Emotions of Consumer Typology

김효정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Hyo-Jung Kim(hyojungkim@snu.ac.kr)

### 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총 2,01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를 기반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고, 집단별로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정서에 따라 청소년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정서 불안정형', '정서 안정형'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다. 둘째, '정서 불안정형' 집단이 '정서 안정형' 집단보다 자아 인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과잉 기대, 부모 학대, 그리고 또래 소외 항목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 불안정형' 집단의 경우 부모 감독, 부모 과잉 기대, 또래 소통, 또래 신뢰, 그리고 교사 애착이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정서 안정형' 집단의 경우 부모 감독, 또래 소통, 교사 애착이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부모 학대가 진로 정체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중심어 : | 청소년 | 진로 정체감 | 부정적 정서 | 생태 체계 이론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We adopted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by Bronfenbrenner. The consumer typology approach was applied based on their negative emotions, and they were categorized into two distinct groups: unstable emotion group(n=903) and stable emotion group(n=1,107). We used the panel data of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Data of a total of 2,010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unstable emotion group, parental supervision, parental excessive expectation, peer communication, peer trust, and teacher attach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identity. In the stable emotion group, parental supervision, parental abuse, peer communication, and teacher attach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identity.

■ keyword : | Adolescent | Career Identity | Negative Emotions | Ecological Systems Theory |

## I. 서론

진로 선택은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통계청의 2017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적성 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32.5%로 중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교육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을 위한 교육에 대한 기대는 36.6%로 낮게 나타났다[1].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기업이나 대학의 명성에 초점을 두거나 부모의 의사 결정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흥미와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후회나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2].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 속에서 또래들과 수많은 경쟁을 하며, 훈육이 강조되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교사와 친구들과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3].

한국의 이러한 생활 및 교육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불안, 외로움, 우울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진로 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5].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는 학업 중단, 행동 중독,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는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방해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여 올바른 진로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6-8].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성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오는 역할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대학 입시와 취업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시기의 청소년들보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4][5]. 부정적 정서가 강한 개인일수록 자신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성취 욕구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건강한 진로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11].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시도되었다. 하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해를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를 살펴보고, 부정적 정서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 하고자 한다. 또한, Bronfenbrenner (2009)[12]의 생태 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집단별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2009)[12]가 제시한 생태 체계 환경 중에서 부모, 친구, 교사라는 미시체계 환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미시체계 환경은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3][11][13].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른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주기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 정체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비행 행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 II. 이론적 배경

## 1. Bronfenbrenner의 생태 체계 이론

Bronfenbrenner(2009)[12]의 생태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체계화 한 이론으로 인간의 발달이 다양한 생태 체계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Bronfenbrenner(2009)[12]는 인간을 둘러싼 생태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라는 다섯 가지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환경 체계 중에서 미시체계에 초점을 두고 고등학생의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미시체계는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 체계로 부모, 친구, 교사, 학교, 형제, 자매 등이 이에 속하며,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라고 할 수 있다[11][13]. 이에 본 연구는 미시체계의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1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는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오랫동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부모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외부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감소시켜 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15].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부모의 건강한 양육 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 정서가 발달하고, 자아 정체감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17].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진로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한국 부모의 양육 방식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간섭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19]. 특히 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자아 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자아 정체감을 정립하는데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20]. 둘째, 한국은 최근 이혼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비의도적인 자녀 방임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방임이 높아지고, 감독의 정도가 낮아질수록 청소년 우울과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21][22]. 셋째, 부모의 보수주의와 권위주의적인 가치와 자녀들의 개인주의가 충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와 부모간의 소통이 감소하고 있다[23]. 부모와 소통이 감소할수록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데, 부모와 애착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진로 정체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반면에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 1.2 친구 관계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동시에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빈도는 증가하게 된다[25]. 또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낮았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이 낮고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특히,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소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자아 정체감과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 1.3 교사와의 관계

교사는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또는 사회적 지지자라고 할 수 있다[28][29].

교사는 학교에서 부모를 대변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후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들도 교사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될 경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교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교사의 사회적 지지나 애착은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교사로부터 관심, 칭찬 등의 사회적 지지를 받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진로 정체감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30]. 또한, 교사는 진로를 고민하는 후기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을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31][29].

## 2.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한국 청소년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래 관계가 긍정적인 대상이 아닌 경쟁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와 함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 청소년기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3][31].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는 학교 폭력, 왕따,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러

한 행동들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개인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8].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자아 정체감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시기로 끊임없는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9]. 또한, 급격한 신체 및 정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 우울, 외로움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7].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일상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좌절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미래를 설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8][31][32].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중에서 공격성, 주의 산만, 우울,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적 정서는 외현화된 정서 문제와 내현화된 정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격성과 주의 산만은 개인의 정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외현화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내현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33]. 첫째, 공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이나 파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34].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이며, 일탈적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14]. 둘째, 주의 산만은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에 초점을 두고 몰두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31]. 주의 산만은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성을 감소시켜 교사 및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5][36]. 셋째, 청소년 우울은 반항, 학습 부진, 건강 염려증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울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청소년기 우울은 또

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고, 학업이나 기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진로 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37]. 넷째, 사회적 위축은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37],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자존감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38].

부정적 정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32][36][37].

### 3. 진로 정체감

진로 정체감(career identity 또는 vocational identity)은 개인이 직업에 대한 흥미, 목표, 능력, 적성 등에 대한 명확한 상(image)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39]. 진로 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평소에 추구하는 가치관, 신체적 조건, 성격, 그리고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9].

후기 청소년기는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바른 진로 정체감이 형성 되어야 향후 안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40].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서 진로 선택과 관련된 후회를 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41][42].

진로 정체감에는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진로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 교사, 또래의 영향을 받게 된다[13]. 특히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나 친구와 같은 대인 관계망은 청소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43].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중에서 부모와 또래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방임적인 태도가 증가할수록 진로 정체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또한,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은 또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 애착이 강할수록 진로 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1], 또래들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며,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적게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긍정적인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44].

진로 정체감이 잘 형성된 청소년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기 쉽고, 개인이 추구하는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45]. 또한,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도 진로 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기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공격성, 주의 산

만,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라는 네 가지 부정적 정서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 하고자 한다. 유형화 된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집단별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부정적 정서에 따라 청소년 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 되며,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유형화 된 집단에 따라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은 어떠한가?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5년에 수집된 6차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5년 10월~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응답 결측치 295개를 제외하였으며, 학년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어 있는 46명의 자료도 제외하였다. 총 2,010명의 응답 자료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19.0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K-means 군집 분석, 교차분석, t-test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조사 도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으며 변수들의 정의는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측정 문항 구성에 참고한 문헌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정서는 공격성, 우울, 주의 산만, 사회적 위축이라는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격성과 주의 산만은 조보환, 임경희(2003)[46]의 연구를,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정연(1998)[47]의 연구를,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48]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문항이 구성되었다. 부정적 정서의 하위

차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우울은 평소에 개인이 느끼는 슬프고 외로운 정도로 정의하였다. 주의 산만은 주어진 과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 문항

변수	측정 항목
감독	방과 후 나의 행방을 알고 있는 정도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는 정도 외출할 경우 집에 들어올 시간을 알고 있는 정도
애정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정도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정도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는 정도
과잉 기대	부모의 기대가 나의 능력 이상이라서 부담스러운 정도
	나와 관련된 일 중에서 공부에 중점을 두는 정도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도
과잉 간섭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간섭하는 정도
	내가 원하는 일을 자주 못하게 하는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불안해하면서 못하게 하는 정도
방임	나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정도 내 몸이나 물건들에 대한 청결을 신경 쓰지 않는 정도
학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는 정도
	폭언이나 욕을 하는 정도 잘못하였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는 정도
도래 소통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정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정도 고민과 문제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 해주는 정도
도래 신뢰	나를 잘 이해해주는 정도
	친구들을 신뢰하는 정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
도래 소외	지금 친구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정도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는 정도 나에 대한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정도
교사 애착	이야기 나누는 것이 편한 정도
	나에게 친절할 정도 만나면 반가운 정도
진로 정체감	현재 내가 좋아하는 직업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정도
	장래의 인생에 대한 방향 설정 정도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는 정도 장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 정도

둘째, 부모 양육 방식은 감독, 애정, 과잉 기대, 과잉 간섭, 방임, 학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묘연(2004)[49]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문항이 구성되었다. 부모 양육 방식의 하위 차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감독은 부모가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애정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과잉 기대는 부모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과잉 간섭은 부모가 과도하게 자신의 일에 관여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방임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학대는 부모가 자신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셋째, 또래 관계는 소통, 신뢰, 소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미경(2010)[50]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문항이 구성되었다. 소통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신뢰는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소외는 친구들로부터 거리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넷째, 교사 애착은 민병수(1991)[51]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문항이 구성되었다. 교사 애착은 교사와 자신이 친밀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다섯째, 진로 정체감은 공인규(2008)[52]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문항이 구성되었다. 진로 정체감은 자신의 직업이나 전공과 같이 진로 선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 4. 측정 문항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인 공격성, 주의 산만, 우울증, 그리고 사회적 위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공격성, 우울증, 주의 산만, 사회적 위축을 측정한 15개의 문항의 요인 구조가 선행 연구들의 측정 도구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40 이상이 되는 교차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각각의 요인들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가 .69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53].

표 2. 요인분석 결과

항목	공격성	우울	주의 산만	사회적 위축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77	.09	.11	-.03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74	.12	.12	.10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74	.20	.05	.12
남이 하는 일을 방해 할 때가 있다	.71	.08	.24	.05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14	.81	.08	.19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3	.77	.06	.05
외롭다	.14	.73	.09	.17
걱정이 많다	.09	.64	.04	.25
오랫동안 집중해야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03	.06	.79	.11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있기 힘들다	.25	.11	.67	.09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16	.04	.67	.07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09	.13	.04	.88
수줍어 한다	.06	.15	.08	.87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11	.17	.07	.81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05	.19	.13	.74
크론바 알파(신뢰도)	.78	.77	.69	.87
고유값	2.41	2.39	1.68	2.94
누적 설명력	19.63	35.72	54.65	62.91
Kaise-Meyer-Oklin	.84			
카이제곱	10691.92***			

\*\*\* p < 0.001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2,010명으로 남학생 1,014명(50.4%), 여학생 996명(49.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학교 형태는 남학교 450명(22.4%), 여학교 505명(25.1%), 남녀공학 1,055명(52.5%)으로 나타났다.

### 2. 부정적 정서에 따른 청소년 유형화

본 연구는 공격성, 주의 산만,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기준으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를 행동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정서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현화 정서로 분류하였다. 청

소년의 네 가지 부정적 정서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자 집단을 분류한 결과 두 가지 유형의 청소년 집단이 도출되었다. 유형 1은 공격성, 주의 산만,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을 모두 높게 인지하는 집단으로 ‘정서 불안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공격성, 주의 산만,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으로 ‘정서 안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군집분석 결과

정서 유형		군집 1 (n=903)	군집 2 (n=1,107)	F	전체 평균
외현화	공격성	3,37	2,83	701.72***	3,07
	주의 산만	3,00	2,51	570.50***	2,73
내현화	우울	3,01	2,44	1077.19***	2,69
	사회적 위축	3,23	2,30	1678.23***	2,71

\*\*\*  $p < 0,001$

### 3. 청소년 유형별 집단 간 차이

#### 3.1 성별 및 학교 행태에 따른 집단별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및 학교 행태가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 항목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불안정형’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안정형’ 집단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결과

항목		정서 불안정형	정서 안정형	$\chi^2$
성별	남성	483(53.5%)	531(48.0%)	6,06*
	여성	420(46.5%)	576(52.0%)	
학교 형태	남학교	203(22.5%)	247(22.3%)	7,52
	여학교	214(23.7%)	291(26.3%)	
	남녀 공학	486(53.8%)	569(51.4%)	
Total		903(100%)	1,107(100%)	2,010

\*  $p < 0,05$

#### 3.2 부모 양육 태도에 따른 집단 차이

부모 양육 태도가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 감독, 부모 애정, 부

모 과잉 기대, 부모 과잉 간섭, 부모 방임, 그리고 부모 학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감독, 부모 애정, 부모 방임 항목에서 ‘정서 안정형’의 평균이 ‘정서 불안정형’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과잉 기대, 부모 과잉 간섭, 부모 학대 평균에서는 ‘정서 불안정형’이 ‘정서 안정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양육 방식 차이 결과

양육 방식	정서 불안정형	정서 안정형	t	전체 평균
감독	1,77	2,01	-9,78***	1,90
애정	1,83	2,09	-11,01***	1,97
과잉 기대	2,75	2,67	3,22**	2,70
과잉 간섭	2,97	2,77	7,26***	2,86
방임	1,68	1,96	-12,75***	1,83
학대	3,52	3,29	8,53***	3,40

\*\*  $p < 0,01$ , \*\*\*  $p < 0,001$

#### 3.3 또래 및 교사 관계에 따른 집단 차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래 소통, 또래 신뢰, 또래 소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소외 항목에서 ‘정서 불안정형’ 집단의 평균이 ‘정서 안정형’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 소통과 또래 신뢰 항목에서는 ‘정서 안정형’이 ‘정서 불안정형’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또래 및 교사 관계 차이 결과

	관계	정서 불안정형	정서 안정형	t	전체 평균
또래	소통	1,72	1,99	-13,02***	1,87
	신뢰	1,65	1,94	-12,60***	1,81
	소외	3,17	2,89	9,85***	3,02
교사		1,94	2,21	-9,79***	2,09

\*\*\*  $p < 0,001$

#### 3.4 모바일 이용 행태에 따른 집단 차이

모바일 이용 행태가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게임, 음악 듣기, 동영상 감상, 모바일 의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



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음악 듣기, 동영상, 모바일 의존 항목 모두에서 '정서 불안정형' 집단의 평균이 '정서 안정형'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모바일 이용 행태 차이 결과

이용 행태	정서 불안정형	정서 안정형	t	전체 평균
게임	2.38	2.17	4.28***	2.26
음악 감상	1.49	1.41	2.29*	1.45
동영상 시청	2.05	1.87	4.15***	1.95
모바일 의존도	2.85	2.47	12.88***	2.64

\*  $p < 0.05$ , \*\*\*  $p < 0.001$

### 3.5 삶 만족도와 자아 인식에 따른 집단 차이

삶의 만족도와 자아 인식이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삶 만족도,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정서 안정형' 집단의 평균이 '정서 불안정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삶 만족도 및 자아 인식 차이 결과

	개인 평가	정서 불안정형	정서 안정형	t	전체 평균
삶 만족도		1.87	2.31	17.34***	2.11
자아 인식	자아 존중감	1.65	2.17	20.98***	1.93
	자아 정체감	2.37	2.48	6.60***	2.43

\*\*\*  $p < 0.001$

### 3.6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측정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지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VIF 지수가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 불안정형' 집단의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 양육 항목에서는 감독( $\beta=.16, t=4.95$ ), 과잉 기대( $\beta=.09, t=1.98$ )가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에

서는 소통( $\beta=.12, t=2.41$ ), 신뢰( $\beta=.10, t=2.00$ )가 진로정체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관계에서는 교사 애착( $\beta=.07, t=2.26$ )이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안정형' 집단의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 양육 항목에서는 감독( $\beta=.12, t=3.70$ )이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학대( $\beta=-.09, t=-1.97$ )가 진로 정체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에서는 소통( $\beta=.11, t=2.67$ )이 진로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사 애착( $\beta=.10, t=3.30$ )이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9.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진로 정체감

변수	종속 변수: 진로 정체감								
	정서 불안정형				정서 안정형				
	$\beta$	t	P	VIF	$\beta$	t	P	VIF	
상수	1.46	4.95	.00		1.63	5.38	.00		
부모 양육	감독	.16	4.62	.00	1.61	.12	3.70	.00	1.35
	애정	.04	1.12	.25	1.76	-.03	-.87	.38	1.79
	과잉 기대	.09	1.98	.04	1.23	.02	.65	.51	1.95
	과잉 간섭	-.05	-1.11	.26	1.67	-.06	-1.39	.09	1.25
	방임	-.02	-.55	.56	1.77	-.01	-.21	.82	1.89
	학대	-.04	-1.26	.20	1.57	-.09	-1.97	.04	1.38
또래 관계	소통	.12	2.41	.02	1.09	.11	2.67	.00	1.66
	신뢰	.10	2.00	.04	1.67	.06	1.51	.13	1.62
	소외	-.00	-.07	.94	1.34	-.03	-1.04	.29	1.35
교사애착	.07	2.26	.02	1.19	.10	3.30	.00	1.12	
F	14.20***				7.40***				
수정된 R <sup>2</sup>	.12				.23				

\*  $p < 0.05$ , \*\*  $p < 0.01$ , \*\*\*  $p < 0.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인 공격성, 우울증, 주의 산만, 그리고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부정적 정서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정서 불안정형'과 '정서 안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정서 불안정형'은 공격성, 우울증, 주

의 산만, 그리고 사회적 위축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다. '정서 안정형'은 공격성, 우울증, 주의 산만, 사회적 위축이 조사 대상자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이다. '정서 불안정형'은 '정서 안정형' 집단 보다 부모 과잉 간섭과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관계에서도 '정서 안정형'보다 소외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이용 행태에서도 '정서 불안정형'의 경우 '정서 안정형' 집단 보다 게임, 음악 감상, 동영상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 인식을 살펴본 항목에서도 '정서 불안정형'의 경우 '정서 안정형'보다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를 높게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 및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대한 이용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아 중독 위험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21][22].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정적 정서는 자기 파괴, 학습 부진 등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감소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 방식 중 감독이 '정서 불안정형'과 '정서 안정형'의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 제도와 규범을 일깨워주는 양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54].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들보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대학 입시와 취업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어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부모의 감독은 '정서 불안정형'과 '정서 안정형'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으

로 자신을 이끌고 통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의 감독이 자녀들에게 과도한 간섭이나 부담으로 인지될 경우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 감독의 형태를 유형화하거나 세분화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인지하는 감독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 소통이 '정서 불안정형'과 '정서 안정형' 집단 모두에서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부모에서 또래로 확대되며, 또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친밀감과 애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55]. 또래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 감정, 그리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56]. 학교에서 또래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와의 소통이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25]. 한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은 또래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하여 또래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를 경쟁 상대가 아닌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 애착이 '정서 불안정형'과 '정서 안정형' 집단 모두에서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을 명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3][29].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문턱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미래 삶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가정환경, 성적, 친구 관계, 건강 상태 등 학생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진로 선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와 애착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된 청소년들의 경우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책임감을 발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7].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진로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모의 과잉 기대가 ‘정서 불안정형’ 집단의 진로 정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정서 불안정형’ 집단의 경우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5]. 부모의 과잉 기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였던 진로 분야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 기대는 자녀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자녀의 진로 정체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과잉 기대가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부정적 정서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부모의 과잉 기대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잉 기대는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에 맞는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부모 학대가 ‘정서 안정형’ 집단의 진로 정체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학대가 ‘정서 불안정형’ 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 안정형’ 집단에만 영향을 미친 이유는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학대를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학대와 같이 부모의 양육 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사회성이 감소하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자아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는데 부모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유형에 따라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집단을 유형화 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도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취업을 희망한 학생들과 대학 진학을 희망한 학생 집단에 따라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직업과 같이 개인이 속한 가정환경에 따라 진로 정체감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의 가정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Seq=36003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Target=title&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Seq=36003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Target=title&Txt)
- [2] 박정희, 이은희,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1호, pp.103-123, 2008.
- [3]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25-237, 2011.
- [4] 박세윤, 정용철, "고 3 을 잘 건디는 법: 고등학생의 신체활동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68권, pp.427-437, 2017.
- [5] 송지숙, "고등학생의 부정적 정서상태 및 자아개념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9호, pp.279-302, 2014.
- [6] 김보람, 김봉환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pp.1-22, 2015.
- [7] 박지선,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경험과 충동행동의 관계에 대한 정서강도의 매개효과," 스트레스研究, 제21권, 제3호, pp.175-182, 2013.
- [8] 최미경,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7권, 제3호, pp.53-68, 2016.
- [8] 윤영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제15권, pp.91-106, 2009.
- [10] 박병금, 노필순,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0호, pp.181-203, 2016.
- [11] 손연, 아신, 수지, 손은령,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pp.109-125, 2014.
- [12]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13] Y. J. Shin and K. R. Kelly,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Optimism, Intrinsic Motivation, and Family Relations on Vocational Identi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61, No.2, pp.141-160, 2013.
- [14] 장신재, "청소년의 공격성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제27권, pp.275-298, 2014.
- [15] 오명희, 장윤옥,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57-74, 2007.
- [16] 김영민, 임영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2호, pp.343-366, 2013.
- [17] 박지영, 정현숙, "남녀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제6권, 제1호, pp.21-37, 2016.
- [18] 조은정,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청소년문화포럼, 제29권, 제1호, pp.138-164, 2012.
- [19] 정은영, 장성숙,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293-312, 2008.
- [20] 손승영,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57-84, 2009.
- [21] N. Matsuura, T. Hashimoto, and M. Toichi, "A Structural Model of Causal Influence Between Aggression and Psychological Traits: Survey of Female Correctional Facility in Japa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1, No.5, pp.577-583, 2009.

- [22] 김수정, 정익중,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43권, pp.1-28, 2013.
- [23] 양혜린, 이재은, 한기주,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8권, 제2호, pp.41-62, 2014.
- [24] 김경민, "부모의 약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제25권, 제1호, pp.40-74, 2010.
- [25] 김문선,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 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 [26] 김미영, 정현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4권, 제3호, pp.101-116, 2015.
- [27] 박미려, 양은주,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호, pp.263-284, 2017.
- [28] 김봉환, 김병식, 정철영,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2006.
- [29] 이상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인구통계적변인 및 진로결정의 현재, 미래, 과거적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141-153, 2006.
- [30] M. T. Wang, M. Brinkworth, and J. Eccles,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 Student Relationship in Adolescent Trajectori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9, No.4, pp.690-705, 2013.
- [31] 김금순, 김은미,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38권, pp.33-57, 2015.
- [32] 안지혜, 윤유동, 임희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2호, pp.197-208, 2016.
- [33]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03.
- [34] 서미정,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4호, pp.115-138, 2008.
- [35] 박춘성, 홍경화, "집중력이 부족한 중학생의 학업성취발달 분석연구," *학습장애연구*, 제8권, 제1호, pp.141-166, 2011.
- [36] 김민주, 하은혜, "청소년의 ADHD 증상이 또래 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32권, 제2호, pp.313-330, 2013.
- [37] 이종원,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3권, pp.1-82, 2013.
- [38] M. J. Boulton and P. K. Smith,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 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C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2, No.3, pp.315-329, 1994.
- [39] J. L. Holland,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5.
- [40] 이희선, 선우현정,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6호, pp.57-73, 2015.
- [41] 윤명희, 서희정,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평생진로 개발역량의 탐색," *문화콘텐츠 연구*, 제14권, pp.1-31, 2009.
- [42] 송현심, 홍혜영, "대학상담: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1권, 제3호, pp.1325-1350, 2010.
- [43] 강란혜, 이미정,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5호, pp.941-953, 2011.

[44] 문은식,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제22권, pp.21-35, 2015.

[45] 한희원, 문경숙,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한 진로정체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융합연구, 제12권, 제4호, pp.25-42, 2014.

[46] 조봉환, 임경희,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4호, pp.729-746, 2013.

[47] 김선희, 김경연,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55-166, 1998.

[48]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4.

[49]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지, 제12권, 제2호, pp.170-189, 2004.

[50] 황미경,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1]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52] 공인규,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53]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Vol.5, No.3, pp.207-219, 1998.

[54] 곽금주, *20대 심리학*,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55] 김현주, 황은숙, “또래애착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제32권, 제1호, pp.7-38, 2012.

[56] 이미숙, 민하영,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

과 및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제6호, pp.1-9, 2013.

[57] J. Cooper, *Classroom Teaching Skills*, Nelson Education, 2010.

[58] 박기원,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5권, 제1호, pp.1-15, 2014.

### 저 자 소 개

김 효 정(Hyo-Jung Kim)

정희원



- 2012년 8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석사)
- 2016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박사)
- 2016년 10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관심분야> : 소비자의 기술 수용 및 저항, 소비 가치, 서비스 디자인